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한 점의 마음에 달려 있다

꼭 오계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 이번에 선원에서 수계법회가 있다고 친구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데 꼭 오계를 받아야만 할까요?

답변 여러분이 보이는 데에서 이 오계를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러분의 몸에 마크가 붙은 거와 같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꼭 표시가 있어야 들여보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 마크를 보고서 모셔가고 그 마크가 없으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먼저 들어가듯. 경찰서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서류를 꾸려서 다 해 가지고 검사로 올라가 가지고 검사가 또 해 가지고 판사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그 위대한 마크가 있다면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무사통과. 이게 그런 마크나 똑같아요. 스님네들은 십계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 신도들은 단 오계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오계를 받게끔 한 거죠. 오계라도 잘만 받으면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못 믿거든 요담에 한번 보세요. 요담에요, 내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못 보겠지만 한번 요담에 꼭 내가 보겠다 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도 줘요.

사람은 겉으로 못 보지만 이 공부 한 사람은 다 보죠. 갈빗대가 몇인지도 보고 다 봐요. 외려 가서 펼쳐 놓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천상 꿈이라고 붙여야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허허, 이것 또 물이 파도가 치는구나. 바람이 불지 않게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이렇게 그냥, 그게 시적이죠. 아주 얼마나 좋아요. '바람만 안 불게 한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짜로 믿는다면 웃음이 나고 그런 말을 해 놓고도, 믿지 못한다면 바둥바둥 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온통 야단나죠. 그게, 그게 어디 진짜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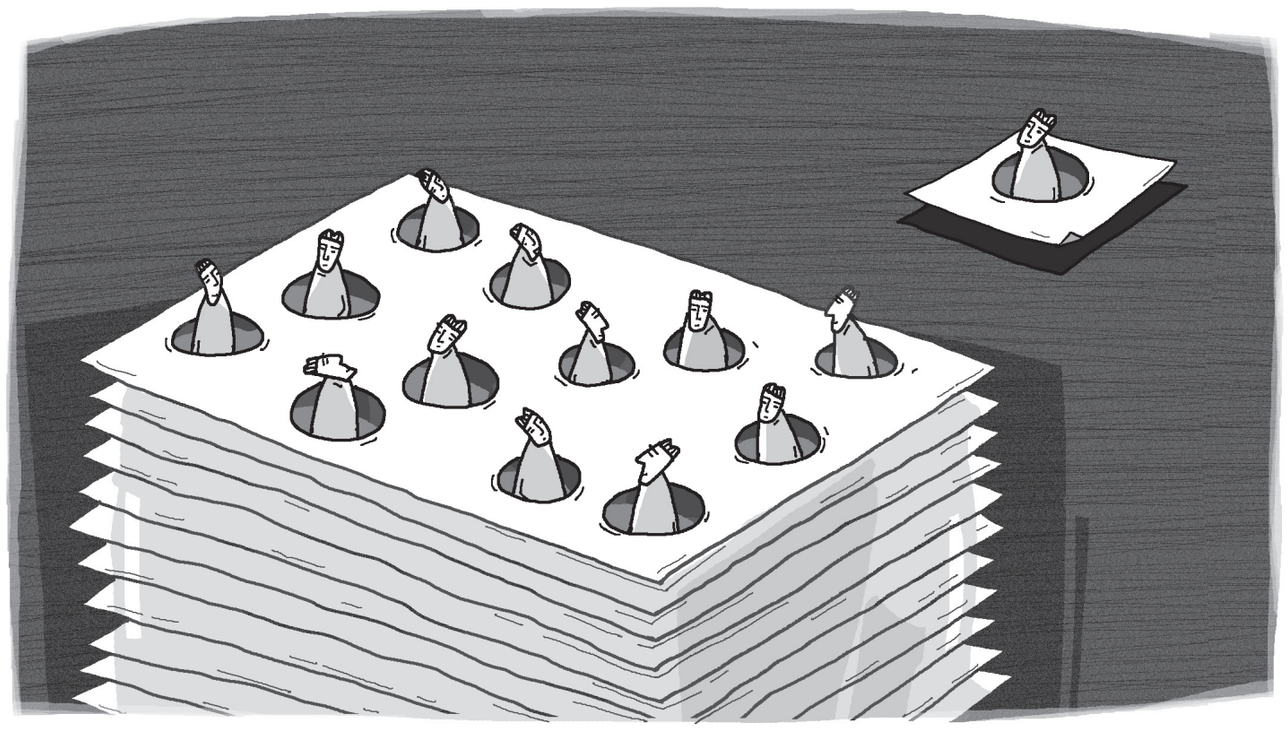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에 있어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질문 대자유인 되기 위하여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부처다, 또는 중생들은 중생들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다는 얘깁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는 전자에 내가 모를 때의 그 모습으로 보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 보니까 안타까운 거지, '내가 잘 알고 저 중생들이 불쌍하다.' 이건 멀쩡한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뜻을? 나 아님이 없다고 할 때 둘이 아닌 거예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돌아 나올 때 어떤 거는 안 됐을 거 같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진화돼서 화하고, 화해서 진화되고 나투면서 이 세상에 출현했을 텐데 어떤 것이 안 됐을 성 부르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전자에 거쳐 온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두를 봐도 남의 잘못 같지 않고 바로 그때의 내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 나고, 모두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더불어 눈물이지, 나 혼자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 한마음의 눈물이지, 나 개별적인 눈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저기 끄달리지 마라." 그러는 것은 뭐냐. 털구멍을, 내면의 털구멍 한 구멍밖에는 통신처가 없다 이겁니다. 털구멍이라고 하는 자체도 방편이에요. 이게 가르치려니까 털구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털구멍이란 이름 없는 그 이전을 털구멍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털구멍에 들여놔도, 많은 거를 다 들여놔도 두드러지는 법이 없고, 다 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묘하고 광대해서 이 삼천대천세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대천세계에 우주 전체가 다 한마음, 체도 없는 마음 속에 자리를 해도 손색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물을 몇 그릇 갖다 바다에다 부어 보세요, 두드러지나. 물을 몇 그릇 떠서 써 보세요, 물이 주나.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공부는 안 하고는 그냥 갈 수 없는 공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깐 그냥, '여기서 그냥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즉 생활도 잘하면서, 이게 그대로 생활 자체가 재료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공으로 떨어지게 하지도 말고 물질로 흐르게 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정당하게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행주좌와 그냥 참선이다, 그대로. 그게 도심이에요.

가장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질문 사는 데 급급하다 보니 애들을 키우는 가장의 역할에 소홀했나 봅니다. 애들이 좀 난폭해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 소소하게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그 영향이 애들한테 얼마나 미치느냐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내가 먹는 대로 영향이, 의학적으로는 먹는 대로 영향이 애한테 간다, 약을 먹으면 약이 영향이 가고 이런 것만 알았지, 보이지 않는 기묘한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는 도대체 모르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여기에 내가 임신을 했다면 자기의 그 영향대로 거기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작으면 그 아이도 작지 어떡하겠습니까? 영향을 자꾸 받았으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쪼들리고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야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전체 가난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죽을 한 그릇 먹어도 허허 웃으면서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고 아마 하늘을 보고 웃을 겁니다. 이 정도로 돼야죠. 지금 우리는 이 손바닥만 한 데 오물쪼물 모여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네 가정 내 가정 찾고 온통 야단들을 하는데 나는 도무지 아주, 그래요. 이 지구 한 덩어릴 딱 따져 놓고 본대도, 그 손바닥도 못한 놈의 거를 가지고 온통 야단들이거든. 이게 도무지 이게 될 노릇이냐 말입니다.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